



‘사람’이 주인공인

세상을 꿈꿉니다.

LEGAL

법률분야 공익활동

- 장애 인권활동
- 아동·청소년·교육활동
-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 국제 인권·이주민 인권활동
- 기타 공익활동
- 공익법 교육·중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01

장애 인권 활동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및 법·제도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수행
-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수행
- 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을 위한 <1층이 있는 삶> 공익소송 수행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 행정소송 수행
- 신길역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주요 지하철역사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는 차별구제소송 수행
- 장애인 선거정보접근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 인강학교 폭력사건 피해자 형사사건 지원
- 장애인 작업장 내 인권침해 등 형사사건 지원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용역 참여
-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연구용역 참여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연구 자문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회의 참여, 상시 자문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2> 제작 후원 및 편집 참여
-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운동
- 장애인법연구회 사무국 운영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2014년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포함한 국가보고서를 2020년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평과 두루는 5월부터 6개월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주로 정부의 CRPD 및 최종견해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위 평가지표를 기초로 이행현황을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에는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위 지표에 기초한 민간 평가조사 결과, 쟁점별 이행 현황 조사 결과,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았습니다.

신길역 사망 사건 공익소송

2017년 10월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던 장애인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루는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길역을 포함하여 여러 지하철역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만, 리프트는 위험하고 불편하며, 수치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에도 편의시설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루는 위 사건을 계기로 영등포구청역사내 환승동로, 충무로역사내 환승구간, 신길역사내 환승구간,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사내 이동구간, 구산역 이동구간에 리프트를 철거하고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2> 제작 지원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2>가 발간되었습니다. 위 해설서는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김명실 이사장)가 2015년 발간한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조문집 <우리 모두 소중해>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의 사례를 쉬운 설명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평은 <우리 모두 소중해>에 이어 <우리 모두 소중해2>의 제작을 후원하였고, 두루의 이주연 변호사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발주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수행

지평과 두루는 4월부터 7개월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소년사법제도 관련 국제인권규범에서 추출한 아동의 권리를 바탕으로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이행실태 조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관련 종사자를 위한 아동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청소년 당사자와 현장종사자의 목소리를 심층적으로 담았습니다.

주요 활동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관련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 강제추방된 해외입양인을 위한 소송
- 아동학대 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지원
- 성폭력·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대리 및 무고사건 변호
-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 「입양특례법」 및 심대 성매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
- 쫓겨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 관련법,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
-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전국 출생등록 실태조사, 법률지원 및 법률매뉴얼 공동집필
-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대응을 위한 NGO연대보고서 작성 및 모니터링 활동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법률교육 및 법률자문
-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세이브더칠드런, 심대여성인권센터 법률자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청소년 정책 자문
-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Partnership ON)」 법률자문, 법률교육, 법률프로젝트 지원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아동의 권리」 공동집필
- 심대여성인권센터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매뉴얼 공동집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공동주최

두루는 8월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심대여성인권센터 등과 공동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를 주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매수자만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 성매매 관련 국제정책의 선두가 된 스웨덴, 모든 법령에서 '성매매' 용어를 '성착취'로 바꾸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을 피해자로 분명히 한 영국에서 전문가를 초청했고, 두루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 심대 성매매 정책을 검토하는 내용의 발제를 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전국 출생등록 실태조사 법률지원 및 법률매뉴얼 공동집필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의 복리를 위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지평과 두루는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생등록 실태조사, '탄생 축하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와 두루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축적된 출생신고 사례에 기반해 아동의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법률매뉴얼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02

아동·청소년·교육활동

지평과 두루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 앞에 닥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함께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송,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 국제연대활동, 법률교육, 자문과 상담을 수행합니다.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루트임팩트(2015년), 크레비스파트너스(2017년), SOPOONG(2018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법률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이러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들이 안정적이고 법률적인 토대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자문 및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손컴퍼니, 맛있저염, 어썸스쿨, 이자앤모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계약서 및 업무협약서 검토, 저작권, 공정거래,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 등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변호사 1 소셜벤처 매칭사업 시행

지평과 두루는 소셜벤처의 회사 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변호사의 프로보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평 변호사와 소셜벤처를 매칭하는 '1 변호사 1 소셜벤처' 매칭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선정된 20개의 소셜벤처와 40여 명의 지평 변호사를 각 매칭하여 소셜벤처가 법률적으로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헤이그라운드 입주사 법률 및 인권교육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루트임팩트'가 운영하는 헤이그라운드 입주사를 대상으로 법률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평은 계약 일반, 지적재산권, 노동법, 주식회사 운영 일반, 세법 등을 주제로 한 법률교육을 진행하였고, 두루는 아동·청소년 인권, 장애 인권, 이주민 인권, 협동조합,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을 주제로 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입법지원,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3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주요 활동

-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 법률지원
- 루트임팩트, 크레비스파트너스, SOPOONG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대상 법률자문
- 금융취약계층 지원 단체(주빌리은행,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 대한 법률자문
- 비정상대출(직업대출, 내구제 대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 사회적기업 전문투자신탁 펀드 조성 등 임팩트 금융 관련 법률자문
- 협동조합 제도개선 연구회(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참여
- SIB 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
- 유럽연합 협동조합 공동원칙을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제도개선 방향 연구
- 헤이그라운드 입주사 대상 법률 및 인권교육
- 1 변호사 1 소셜벤처 매칭사업 기획 및 진행
- 서울시 NPO 지원센터 주관 캐나다 사회적 금융 연수 참여

04

국제 인권·이주민 인권활동

주요 활동

- 난민인정신청 조력,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 대리
- 난민인정신청 과정에서의 통·번역 제도 개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신청 등 외국인 구금 해제 조력
- 가족결합권, 아동구금 관련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대리
- 제주 지역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 및 공항만 난민신청자 법률 조력
-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사망 산업재해 소송 대리
-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 GCM) 백서 작성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 기부 및 모금 관련 국내법 체계에 대한 상시적 법률자문
-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한 법률자문
- 주 러시아 중소기업연합회, KOTRA 러시아 무역관,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이주민센터 친구 지원 및 법률자문, 서남권글로벌센터 정기 상담 및 법률자문
- 훈인이주 여성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
- 이주민 대상 법률교육, 이주민 인권을 위한 법률교육
- 난민인권센터 지원, 난민 네트워크 참여 및 난민 혐오 대응 실무그룹 참여
-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 참여
-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방한 시민사회 대응 참여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 가이드라인 작성

2018년 유엔에서 통과된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GCM)는 이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와 각국의 책임을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두루는 글로벌 콤팩트의 이해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하여 글로벌 콤팩트의 효과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두루는 특히 각 목표의 해석, 목표와 관련된 법적 및 정책, 글로벌 콤팩트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사항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난민 지원 확대 및 구금 문제 대응

지평과 두루는 2017년에 난민인권센터와 맺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2018년에도 난민에 대한 조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평은 업무협약을 맺은 로펌 중 가장 많은 사건을 맡아 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고, 특히 두루는 외국인보호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난민을 지원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난민네트워크, 출입국항 TF, 혐오대응 TF 등 난민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에도 참여하여 난민 조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해외 NGO,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평 해외 사무소를 통해 법률가의 해외 봉사활동 및 공익법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참여

두루는 이주민을 조력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인 '이주민권 사례연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권사례연구회에서는 2018년 공동 사업으로 2017년 1월~2018년 6월에 있었던 판결례 중 이주민의 인권에 디딤돌이 된 판결과 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평의 국제인권소위원회와 두루의 10여 명의 변호사들이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디딤돌, 걸림돌 판결집은 2019년 2월 중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에 의한 살인사건 유족 대리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지평과 두루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남편이 부인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에서 망인의 유가족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망인은 가해자와의 이혼을 원하였으나 가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며 망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였고, 망인이 경찰에 이를 신고하자 가해자가 신고 당일에 망인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형사재판에서 망인의 유가족을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역 25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성폭행 신고의 처리에 관한 경찰의 위법한 공무수행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희귀질환 발병자 대리 국가유공자인정소송

지평과 두루는 취사병으로 군 복무 중 희귀질환을 얻은 상이군인을 대리하여 국가유공자인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소속 부대는 취사병이 편제에 비해 모자랐고, 고된 업무는 당사자를 비롯한 후임병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로에 시달리던 당사자는 시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치료는 지연되었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양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과 두루는 과로가 질병의 유발 및 악화요인을 지적하면서 충실히 군생활을 하다가 시력을 잃은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군인의 건강권과 의료권에 관한 청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선거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통일, 여성 인권, 군 인권 등 다양한 공익법 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5

기타 공익 활동

주요 활동

- 선거의 자유 /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 집회·시위의 자유 / 경찰의 집회 과잉진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 통일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자문
- 여성 인권 / 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에 의한 살인사건 유족 대리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 군 인권 / 군 훈련소 내 선거정보접근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군 인권 / 군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 군 인권 / 군 복무 중 희귀질환 발병자 대리 국가유공자인정소송
- 시민단체 / 아쇼카 한국 '공감의 뿔' 프로젝트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아산나눔재단 자문
-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 기타 /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변호 및 위헌소송
- 기타 / 피보호감호자 임금청구소송
- 기타 / 수형자 의료권 침해사건 법률조력
- 기타 / 중국동 살인사건 피해자 대리 국가배상청구소송
- 기타 / 세월호 민간잠수사 보상금청구소송
- 기타 / 엄궁동 살인사건 재심청구
- 기타 / 지뢰피해자 위로금 지급거부 취소소송 및 위헌소송
- 기타 / 공익신고자 보호

06

공익법 교육·중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지평과 두루는 NGO가 쟁점화하는 의제와 공익활동을 원하는 개별 변호사를 연결하고, 개별 변호사가 공익법 영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익법 활동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 활동 중개시스템 구축

지평과 두루는 공익사건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공익법 영역에서의 변호사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익사건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별 변호사와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익·인권단체 사이에 공익법 활동을 중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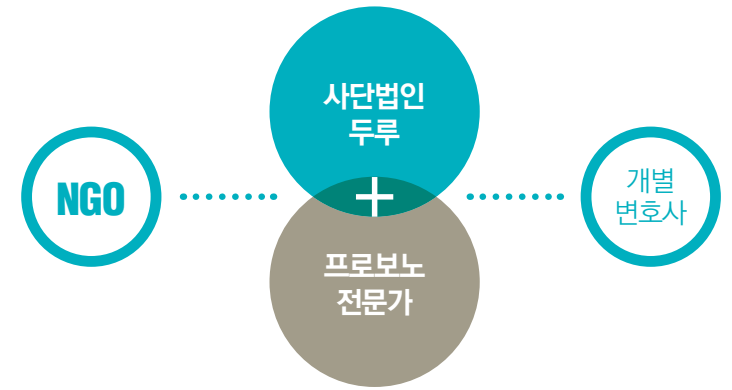
주요 활동

- 두루, 공익변호사 3명 추가 채용
- 로펌 공익전문변호사 정기회의 참여
-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지원
- 공익변호사모임 사무국 회의 참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캠프 지원
- 공익변호사모임 주최 '공익변호사 한마당' 참여 및 지원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 : 연' 캠프 지원
- 두루 법학전문대학원 하계·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 세이브더칠드런 업무협약 체결 및 법률지원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및 법률지원
- 제7회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 참석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심포지엄 개최

지평과 두루가 속해 있는 로펌공익네트워크는 4월(상반기)과 9월(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공익단체와 로펌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 결성되어 2주년을 맞이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로펌이 서로 힘을 합쳐 로펌 및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지원

두루는 11월 13일(서울), 11월 15일(대전)에 진행된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여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학생들과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에 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라운드테이블에 재정지원을 하였고, 발제와 사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애란원 및 루트임팩트 법률교육 진행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루트임팩트와 연결된 소셜벤처와 국내 최초 미혼모 시설인 애란원의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법률교육을 실행하였습니다.



공익변호사 한마당 참여 및 지원

공익변호사모임 주최 '공익변호사 한마당'에 두루의 변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00여 명의 공익변호사들이 속해 있는 공익변호사모임에서 두루 변호사들이 사무국, 공익 행사 참여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평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 한마당'에서 공익변호사들은 공익활동의 노하우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루 법학전문대학원 하계·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두루는 여름과 겨울 각 3주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익인권 분야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무수습은 공익소송 기록 검토, 서면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공익단체 등 NGO와의 협력 및 교류, 그 외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소송기록 검토 및 서면 작성을 비롯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에 파견되어 단체의 활동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두루는 공익변호사의 진로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익변호사 양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두루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후기



이진훈 학생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다른 변호사단체에서는 느낄 수 없을 것들을 두루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공익변호사가 되는 것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률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지만,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선불리 공익변호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루'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변호사님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보였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표정에서 자기 분야에 대한 자부심과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을 읽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루'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가 좋았습니다. 함께 실무수습을 했던 친구들, 항상 관심을 가져주셨던 두루 변호사님들, 특강을 해주시거나 식사를 함께 한 지평 변호사님들까지 다들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이렇게까지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공익'이란 가치를 꿈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것도 정말 즐거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송의 진행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며
얼른 실력을 갖춘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는 공익변호사가 될래.', '나는 인권변호사가 될래.' 법학전문대학원생이라면 공익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익변호사나 인권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꾀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루에서 지낸 시간 동안 공익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함께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루에서의 실무수습은 제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의 남은 시간과 이후 변호사로서 제가 살아갈 시간을 지탱해 주는 큰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차에는 제 관심 영역인 아동·청소년 영역에 대해서 해당 영역을 맡고 계신 변호사님들께 개별 과제를 부여 받아 해당 영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들로부터 저희가 구성한 법리나, 자료들이 실제

소송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고 법리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단순히 책을 공부하며 얻을 수 없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내에 변호사가 된다면 함께 이 소송의 진행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며 얼른 실력을 갖춘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책에서 볼 때는 '이걸 어디에 써먹지?' 하고 느꼈던 것들이 풍부한 것들을 엮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

저는 이번 학기 두루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서 공익에 대해서 더 두루 보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공익을 지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두루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두루에서의 실무수습은 방학 동안 한 어느 경험보다 가장 값진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현 학생